

중국, 9개월 연속 주택가격 하락

5월 100대 도시 평균 0.31% 떨어져 ... 안정기조 속 약세 지속

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가격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영향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.

중국의 부동산정보 제공기관 중국지수연구원은 6월1일 중국 100대 도시의 5월 주택 가격이 m²당 평균 8684 위안(약 156만원)으로 4월에 비해 0.31% 하락했다고 발표했다.

9개월 연속 하락했다.

100대 도시 중 73대 도시가 하락했고 26대 도시는 올랐으며 1곳은 변동이 없었다. 하락한 도시는 4월에 비해 2개 늘었고 하락폭이 1% 이상인 도시는 17곳이었다.

베이징(北京), 상하이(上海) 등 10대 도시의 집값은 m²당 평균 1만5314위안(약 275만원)으로 4월보다 0.5% 낮아졌다.

2011년 5월에 비해서는 3.2% 급락했다.

중국지수연구원은 통화정책의 미세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기조 속에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04>